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02. Vol. 21, No. 2, 487-501

<Brief Report>

한국판 공격성 질문지의 타당화 연구

서 수 균† 권 석 만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공격성, 분노감, 적대감은 정신장애의 주요증상들로, 이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 공격성 질문지(Aggression questionnaire, Buss & Perry, 1992)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격성 질문지 한국판을 개발하고자, 대학생 565명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분노감 하위척도에 속한 두 문항이 다른 요인에서 더 높은 요인계수를 보여, 이 두 문항을 제외하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다시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4요인 모델이 적절히 지지되었으며 이에 기초해서 한국판 공격성 질문지를 구성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살펴보았다. 한국판 공격성 질문지의 내적합치도는 적절하였으며, 검사-재검사 신뢰도도 높은 수준을 보여 시간적으로 안정적인 것으로 시사되었다. 공격성 질문지(AQ)와 공격성 관련 다른 질문지의 상관분석에서도 AQ의 타당성을 일관되게 지지하는 결과들이 나왔으며, AQ의 하위척도들이 각각의 측정 영역을 변별력 있게 측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공격성 질문지(Aggression Questionnaire), 신뢰도, 타당도, 탐색적 요인분석

최근 들어 분노와 공격성이 개인의 정신 및 신체 건강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강조되면서, 이에 대한 연구가 새롭게 활발해지고 있다. 분노와 적대감이 관상동맥 질환의 발병에 기여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주목받은 지는 오래되었다(안도용, 김교헌, 1996). DSM-Ⅳ(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의 진단명 중에서 반사회성 성격장애, 경계선적 인격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간헐적 폭발성 장애, 품행장애 등에서는 분노감이나 공격성이 주요 문제로 언급되고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서 수 균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 56-1 서울대학교 대학생활문화원 / FAX : 02-871-6033 / E-mail : ssg2@snu.ac.kr

있다(Norcross & Kobayashi, 1999). 이러한 임상적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울이나 불안과 비교했을 때 분노와 공격성에 대한 연구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Kassinove & Sukhodolsky, 1995). 이처럼 분노 관련 연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로 일군의 학자들은 분노장애에 대한 공식적인 진단적 기준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Deffenbacher, Thwaites, Wallace, & Oetting, 1994; DiGiuseppe, Eckhardt, Tafrate, & Robin, 1994). 최근에는 분노와 공격성을 주요 증상으로 하는 진단명과 진단기준이 새롭게 제안되면서, 분노경험과 표현의 부적응성에 대해 임상적으로도 강조되고 있다(Eckhardt & Deffenbacher, 1995).

Eckhardt와 Deffenbacher(1995)는 분노장애를 다섯 가지로 구분해서 제안하고 있다. 먼저 심리사회적 스트레스가 분명히 존재하며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하지 않는 경우를 '분노기분을 수반한 적응장애(Adjustment Disorder with Angry Mood)'로 분류하였다. 이어서 상황적 특수성과 공격행동의 여부에 따라서 4가지 분노장애로 구분하고 있는데, 공격행동을 수반하지 않는 상황성 분노장애(Situational Anger Disorder without Aggression), 공격행동을 수반하는 상황성 분노장애(Situational Anger Disorder with Aggression), 공격행동을 수반하지 않는 범분노장애(General Anger Disorder without Aggression), 공격행동을 수반하는 범분노장애(General Anger Disorder with Aggression) 등이 그것이다. 심리치료와 관련해서는 분노경험이나 공격행동의 감소 자체에 초점을 둔 심리치료 모델이 다양하게 제안되고 있으며, 임상실제에서의 그 유용성이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서 경험적으로 확인되고 있다(Deffenbacher, 1999; Mayne & Ambrose, 1999; Ornstein, 1999; Leifer, 1999; Paivio, 1999; Robins & Novaco, 1999).

분노경험과 공격행동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를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자기보고형 질문지 형태는 경제성과 용이성으로 인해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Buss-Durkee Hostility Inventory(이하에서 BDHI로 칭함; Buss & Durkee, 1957), State-Trait Anger Scale(Spielberger, Jacobs, Russell, & Crane, 1983), Anger Expression Inventory (AXI; Spielberger, Johnson, Russell, Crane, Jacobs, & Worden, 1985), Multidimentional Anger Inventory (MAI; Siegel, 1986), Anger Self Report(ASR; Zelin, Adler, & Myserson, 1972), Anger Inventory(Novaco, 1975), Cook & Medley Hostility Scale(Ho Scale; Cook & Medley, 1954), Aggression Questionnaire(이하에서 AQ로 칭함; Buss & Perry, 1992) 등이 주로 사용되는 것들이다. 본 연구자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중에서 AQ와 ASR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내에서 번안되어서 사용되고 있다(김세진, 1999; 남궁희승, 1995; 노안녕, 1983).

이러한 자기보고형 질문지들에 대한 요인분석 연구들은 대체로 세가지 구분된 차원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Watson, & Wan, 2000). 이는 분노감, 공격성, 적대감이라는 세요인으로 개념화되며, 분노감(anger), 적대감(hostility), 공격성(aggression)의 영문 첫 글자를 합쳐서 "AHA" 신드롬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한다(Spielberger, Johnson, Russell, Crane, Jacobs, & Worden, 1985). 또한 분노감은 정서(affect)에 해당되고, 공격성은 행동(behavior)에, 적대감은 인지(cognition)에 해당된다고 해서 "ABC" 모델이라고 일컬으며, 특질 분노를 구성하는 세 요인이라고 주장하는 연구자들도 있다(Martin, Watson, & Wan, 2000).

분노감, 적대감, 공격성은 연구자들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고 비일관되고 애매하게 개념화되어 사용되는 혼란을 보였다. 분노와 적대

감을 측정했던 질문지가 다른 연구에서는 공격성을 측정하는 질문지로 사용되기도 하였다(Martin et al., 2000). 혼란스럽게 사용되어 오던 분노감, 적대감, 공격성에 대한 개념적인 구분은 비교적 최근에 와서야 명확해졌다. 스필버그 등(Spielberger et al., 1983)은 분노를 경미한 수준의 성가심이나 짜증스러움에서부터 격노나 격분와 같은 강한 흥분 상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감정들로 구성된 정서 상태로 보았다. 적대감은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태도로 정의되며 공격적인 행동을 동기화시킨다(Buss & Perry, 1992; Spielberger et al., 1983). 공격성은 타인이나 다른 대상을 향한 파괴적이고 처벌적인 행동을 의미한다(Spielberger et al., 1983).

Martin 등(2000)은 특질 분노를 측정하는 자기보고형 질문지들을 포괄적으로 수집하고 이들로부터 특질분노를 측정하는 24개의 하위척도들을 구성했다. 이 24개 척도들을 가지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분노 정서, 행동적 공격성, 냉소적 인지로 구성된 세가지 요인이 자료를 가장 잘 설명해주었다. 이를 통해서 이들은 특질 분노가 정서, 행동, 인지 차원의 세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경험적으로 보여주었다. 특히 분석에 포함된 자기보고형 질문지들 중에서 AQ만이 세가지 요인에 하위척도들이 고르게 포함되어 있어서, AQ가 특질 분노에 대한 세요인 "ABC" 모델에 잘 부합되는 질문지임을 시사하고 있다. AQ의 분노감 하위척도는 분노 정서 요인에, 적대감 하위척도는 냉소적 인지 요인에 각각 포함되었으며, 신체적 및 언어적 공격성 하위척도는 행동적 공격성 요인에 포함되었다.

AQ의 개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AQ는 분노, 적대감, 공격성 등을 측정하기 위해서 널리 사용되어 오던 BDHI의 제한점들을 보완하고자 개발되었다. AQ의 문항은 BDHI에서 일부 그대로 가져오기도 하였지만 많은 문항들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BDHI는 7개 하위 척도-폭행(assault), 간접적 공격성(indirect aggression), 성마름(irritability), 부정주의(negativism), 분개(resentment), 의심(suspicion), 언어적 공격성(verbal aggression)-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는 연역적으로 추론된 것으로 요인분석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BDHI에 대해 이후에 이루어진 요인분석 결과는 일관되지 않고 있다. 주로 공격성과 적대감(Buss & Durkee, 1957), 은밀한 적대감(Covert Hostility)과 공공연한 적대감(Overt Hostility)(Bendig, 1962), 분노경험과 분노표현(Bushman, Cooper & Lemke, 1991; Sarason, 1961) 등의 두 요인이 확인되었으며 부정주의, 일반적 적대감, 분노 표현으로 구성된 세 요인이 확인되기도 하였다(Russel, 1981). 또한 BDHI는 검사-재검사 신뢰도가 제시되지 않아 시간적인 안정성에 있어서도 검증되지 않았으며, 진위형 대답을 요구하기 때문에 피검자의 선호 정도가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점도 제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Buss & Perry, 1992).

Buss와 Perry(1992)는 이상에서와 같은 BDHI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3개의 표집을 대상으로 한 엄격한 요인분석 연구를 통해서 4개 요인으로 구성된 AQ를 개발하고 다양한 성격 특질척도와 동료 평가치와의 상관분석을 통해서 AQ의 타당성을 검증해 보였다. 신체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분노감, 적대감을 포함하는 4개 요인은 각각이 하나의 하위척도를 구성하고 있다. 신체적 및 언어적 공격성 척도는 특질 분노의 행동적 차원에 해당되며 분노감과 적대감 척도는 각각 정서와 인지 차원에 해당된다. 이는 Martin 등(2000)이 주장하는 특질 분노에 대한 ABC모델을 잘 반영해 주고 있다.

본 연구자는 AQ의 4요인인 신체적 및 언어적 공격성, 분노감, 적대감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Buss와 Perry(1992)가 언급한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Buss와 Perry(1992)에 따르면 신체적 공격성과 언어적 공격성은 타인에게 상처나 상해를 입히려는 경향성으로 행동의 도구적 혹은 운동 요소를 반영한다. 분노감은 공격을 위한 생리적 각성과 준비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행동의 정서적 혹은 정동적 요소를 나타낸다. 적대감은 타인이 악의를 가지고 있고 자신을 부당하게 대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세상에 대해 갖는 부정적인 태도를 의미하는데, 이는 인지적 요소를 반영한다. Buss와 Perry(1992)는 논의에서 이 세가지 차원이 공격성의 성격적 특질을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AQ는 특질적인 공격성과 관련된 최근의 연구들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Harris(1996)는 AQ와 공격행동에 대한 자기보고 빈도간에 정적인 상관이 있음을 보고하였고, Russel과 Arms(1995)는 AQ의 신체적 공격성 척도와 분노감 척도가 아이스하키 경기를 관전하는 남자들이 신체적인 싸움에 말려드는 정도를 예언해준다고 밝히고 있다. Harris와 Knight-Bohnhoff(1996) 역시 신체적 공격성과 분노감 척도가 대학생의 자기보고 공격 행동과 정적인 상관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일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탐색적 요인분석 연구에서는 AQ에서 역으로 채점되는 두 문항이 낮은 요인계수를 보여, 이 두 문항을 일본판 공격성 질문지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Nakano, 2001). Meesters, Muris, Bosma, Schouten, Beuving (1996)의 연구에서는 낮은 요인계수를 보인 세 문항(언어적 공격성 한 문항과 적대감 두 문항)을 제외하고 26문항으로 구성된 AQ에 대해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했을 때 합치도가 좋은 수준으로 향상되었다. Harris(1995)의 확인적 요인분석 연구에서는 AQ가 좋은 합치도 수준은 아니지만 괜찮은(acceptable) 합치도 수준(GFI=.825, AGFI=.794, RMSR=.077)을 보여 AQ의 4요인 모델이 대체로 지지가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여러 연구들에서 일관되게 높게 나와서 AQ가 공격성에 관련된 특질적인 성격차원을 측정하고 있음이 시사되었다(Williams, Boyd, Cascardi, & Poythress, 1996; Harris & Knight-Bohnhoff, 1996; Russel & Arms, 1995).

앞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최근 연구들에서 공격성의 성격적 특질로 분노감, 적대감, 공격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Martin 등(2000)은 이들을 특질 분노를 구성하는 세 요인이라고 일컫기도 하였다. AQ는 이 세요인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캐나다, 일본, 스웨덴, 네덜란드 등 여러 나라에서 자국판으로 개발되어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서 번안되어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분노관련 측정 질문지들은 아쉽게도 분노감, 적대감 공격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지 않은 질문지들로, 공격성의 세 가지 성격적 특질을 고르게 반영하고 있지 않거나 애매하게 구분 짓고 있다. 따라서 특질 분노의 세 가지 요인인 분노감, 적대감, 공격성을 고르게 포함하고 있는 측정도구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최근 들어 부적절한 분노감과 공격행동으로 다양한 개인적 및 사회적 문제들이 초래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여러 심리치료프로그램이 제안되고 있다. AQ는 이러한 심리치료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도구로서도 유용하게 한 몫을 하리라 기대된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한국판 AQ를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한국판 AQ의 타당성을 검증해 보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이에 기초해서 한국판 AQ를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한국판 AQ의 시간적인 안정성을 알아보고자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살펴보고, 구성개념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요인분석에 더해서 기존에 사용

되고 있던 공격성 관련 질문지들과의 상관을 비교해 보았다. 상관분석에 포함된 질문지는 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이하에서 PAI로 칭함)의 공격성 하위척도와 긍정적 인상 하위척도,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Korean version (이하에서 STAXI-K로 칭함)로, 한국판 AQ가 PAI의 공격성 척도와는 정적인 상관을 보이는 반면에 긍정적 인상척도와는 부적인 상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AQ는 공격성의 성격적 특질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STAXI-K의 상태분노 척도보다 특질분노 척도와 더 높은 상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분노표현양식과 관련해서는 분노-표출 척도와는 정적 상관을 보이는 반면에 분노-통제척도와는 부적인 상관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방 법

참여자

대학에서 학부 및 대학원에 재학중인 대학생 565명을 대상으로 AQ질문지를 실시하였으며, 무응답자는 13명으로 최종 분석에 포함된 사례는 552명으로 남자가 218(32%)명, 여자가 334명(68%)이었다. 연령은 18세에서 53세 범위였으며 평균 연령은 22.61세(SD=3.19)였다. 이 중에서 300명에게만 STAXI-K와 PAI 하위척도를 함께 실시하였다(남, 94명; 여, 202명).

도구

공격성 척도(Aggression Questionnaire)

Buss와 Perry(1992)가 개발한 AQ를 영어권에서 장기간 거주한 두 사람과 논의를 거쳐 번안하였으며, 번역이 일치하지 않았던 한 문항에 대해서는 영어권 현지인에게 물어보고 최종적인 번안본을 완성하였다. AQ는 신체적 공격성(9문항), 언어적 공격성(5문항), 분노감(7문항), 적대감(8문항) 등의 4개 하위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Likert 형의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2: 약간 그렇다, 3: 웬 만큼 그렇다, 4: 꽤 그렇다, 5: 매우 그렇다)상에 평정하도록 하였다. AQ는 모두 2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특징이 강한 것을 나타낸다. Buss와 Perry(1992) 연구에서 얻어진 내적 합치도(α)는 다음과 같았다: 신체적 공격성, .85; 언어적 공격성, .72; 분노감, .83; 적대감, .77(총점= .89). 동일한 연구에서 9주 간격으로 얻어진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다음과 같았다: 신체적 공격성, .80; 언어적 공격성, .76; 분노감, .72; 적대감, .72(총점 =.80).

상태 특성 분노 표현 척도(State 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Korea version: STAXI-K)

Spielberger, Krasner, Solomon 등(1988)이 개발한 상태 특성 분노 표현 척도(State 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를 전겸구, 한덕웅, 이장호, Spielberger 등(1997)이 한국판으로 개발한 것을 사용하였다. STAXI-K는 분노의 경험적 측면인 상태 분노(10 문항)와 특질 분노(10문항)를 측정하는 문항들과, 분노의 세가지 표현적 측면인 분노-억제(8문항), 분노-표출(8문항), 분노-통제(8문항)를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평정되며, 상태 분노는 1:전혀 아니다, 2: 조금 그렇다, 3: 상당히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등으로 평정된다. 특질 분노와 분노 표현 척도에서는 1: 거의 전혀 아니다, 2: 가끔 그렇다, 3: 자주 그렇다, 4: 거의 언제나 그렇다 등으로 평정된다. 내적합치도(α)는 상태 및 특질 분노는 각각 .89와 .82였으며, 분노-표출, 억제, 통제는 각각

.67, .67, .79였다.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상태분노가 .19, 특질 분노가 .69였으며, 분노-표출, 억제, 통제는 각각 .73, .35, .17이었다(전겸구 등, 1997).

성격평가질문지(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 y: PAI)

성격평가질문지는 Morey(1991)에 의해 개발되어 김영환, 김지혜, 오상우, 임영란 및 홍상황(2001) 등에 의해 한국판으로 표준화되어 최근에 사용되기 시작한 검사로, 총 22개의 소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격성 척도, 긍정적 인상 소척도만을 발췌해서 사용하였다. 공격성 척도는 다시 공격적 태도(6문항), 언어적 공격성(6문항), 신체적 공격성(6문항) 등의 세가지 하위척도로 나뉜다. 공격적 태도는 AQ의 분노감 하위척도와 유사하게 분노를 경험하거나 표현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불신이나 의심이 주가 되는 적대감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언어적 공격성과 신체적 공격성은 AQ의 언어적 및 공격성 하위척도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긍정적 인상 척도는 자신을 지나치게 좋게 보이려 하며 사소한 결점도 부인하려는 태도를 평가하기 위한 척도다. 모두 4 점 척도 상에서 평정되었다(0: 전혀 그렇지 않다, 1: 약간 그렇다, 2: 중간이다, 3: 매우 그렇다). 내적합치도(α)는 .73에서 .74사이였으며,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7에서 .86 사이였다(김영환 등, 2001).

결 과

탐색적 요인분석

SPSSWIN 10.0을 이용해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공통요인분석중 최대우도법으로 요인을 추출하였고 요인간 상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으므로 Oblimin 방법(델타=0)으로 회전하였다. 요인의 수를 지정하지 않고 최대우도법으로 요인을 추출하였을 때, 고유치가 1이상인 요인은 모두 6개로 고유치 값은 다음과 같았다: 6.62, 2.62, 1.94, 1.65, 1.41, 1.21. Scree plot 을 살펴보면 요인수를 3개, 4개, 5개 중 어느 것으로 정할지 분명하지 않으나, 해석 가능성을 고려할 때 4가지 요인을 추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요인 개수를 4개로 지정하고 다시 최대우도법으로 요인을 추출하고 Oblimin 방법으로 회전하여 요인계수행렬을 구하였다. 그 결과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요인계수행렬을 살펴보면 분노감 하위척도의 5번('내 친구중 일부는 내 성격이 불같다고 말한다')과 6번 문항('때로 나는 이유없이 갑자기 화가 난다')이 분노감보다는 각각 언어적 공격성과 적대감에서 더 높은 요인계수를 보였다. 요인분석에서 확인된 요인구조에 보다 충실히 부합하기 위해서는 분노감 하위척도에서 이 두 문항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지는 바, 분노감 하위척도에서 5번과 6번 문항을 제외하고 27문항으로 구성된 AQ에 대해서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에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4요인이 설명하는 변량은 34.97%로 나타났으며, 요인계수행렬은 제안된 4요인 구조 모델을 적절하게 지지하고 있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Buss와 Perry(1992)가 개발한 29문항으로 구성된 AQ에서 분노감 하위척도의 5번과 6번 문항을 제외한 27문항으로 구성된 한국판 AQ를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이후에 제시된 통계적 분석은 Buss와 Perry (1992)가 개발한 AQ에서 분노감 하위척도의 5번 6번 문항을 제외하고 새롭게 구성된 한국판 AQ에 대한 결과이다.

표 1. AQ 요인계수 행렬

문 항	요인계수			
	1	2	3	4
신체적 공격성				
1. 때로 나는 누군가를 치고 싶은 충동을 통제하기 어렵다 .	**.40(.41)**	-.15(-.15)	-.32(-.29)	.15(.18)
2. 누군가 화를 한껏 돋구면, 나는 그 사람을 칠지도 모른다.	**.59(.60)**	.08(.08)	-.33(-.28)	-.05(-.032)
3. 누군가 나를 때리면, 나도 되받아 친다.	**.44(.45)**	.21(.22)	-.12(-.07)	-.04(-.02)
4. 나는 보통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이 치고 받고 싸우는 편이다.	**.30(.27)**	.23(.28)	.00(-.03)	.22(.19)
5. 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해야한다면,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	**.37(.38)**	.15(.15)	.01(.054)	.15(.16)
6. 나를 몰아 세운 사람과 주먹다짐을 한 적이 있다.	**.71(.68)**	.14(-.18)	.20(.17)	.01(-.01)
7. 나는 누굴 때리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	**.28(.30)**	-.04(-.06)	.01(.03)	-.18(-.16)
8. 나는 내가 아는 사람을 위협해 본 적이 있다.	**.58(.56)**	.05(.08)	.12(.10)	.17(.17)
9. 나는 너무 화가 나서 물건을 부순 적이 있다.	**.46(.46)**	-.09(-.08)	-.11(-.12)	.17(.18)
언어적 공격성				
1. 나는 친구와 의견이 다를 때 솔직하게 얘기한다.	.01(.01)	**.59(.57)**	-.03(.01)	-.15(-.15)
2. 나는 다른 사람과 의견 충돌이 잦다.	.01(.05)	**.36(.39)**	-.22(-.21)	.24(.23)
3. 사람들이 나를 짜증나게 하면, 나도 그에 맞서 그들에게 한마디 해줄 수 있다.	.23(.24)	**.49(.47)**	-.17(-.11)	-.05(-.03)
4. 나는 다른 사람과 의견이 다를 때, 흔히 논쟁을 벌리게 된다.	.06(.05)	**.74(.73)**	.05(.06)	.11(.09)
5. 친구들은 내가 따지기를 좋아한다고 말한다.	-.02(-.05)	**.53(.57)**	-.02(-.02)	.19(.17)
분노감				
1. 나는 화가 빨리 치밀지만 또 빨리 풀어진다.	-.02(-.02)	.26(.27)	**-.29(-.30)**	-.07(-.08)
2. 일이 뜻대로 안됐을 때, 나는 화를 참기 어렵다 .	.07(.09)	.08(.08)	**-.59(-.54)**	.18(.20)
3. 나는 때로 울분이 치밀어 참기 어려워 금방이라도 폭발해버릴 것 같다.	.05(.05)	.01(.02)	**-.51(-.51)**	.37(.38)
4. 나는 쉽게 흥분하지 않는 사람이다. *	-.08(-.09)	.09(.11)	**-.51(-.57)**	-.11(-.13)
5. 내 친구 중 일부는 내 성격이 불같다고 말한다. +	(.12)	(.51)	(-.27)	(-.01)
6. 때로 나는 이유 없이 갑자기 화가 난다 .+	(.10)	(-.10)	(-.18)	(.56)
7. 나는 화나는 것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12(.11)	-.09(-.07)	**-.44(-.48)**	.23(.23)
적대감				
1. 나는 때로 시기나 질투에 차 있다.	-.07(-.07)	.08(.08)	-.25(-.22)	**.47(.48)**
2. 내가 부당하게 대우받고 있다고 느낄 때가 때때로 있다 .	-.01(-.02)	-.02(.00)	-.17(-.14)	**.59(.60)**
3. 다른 사람들은 항상 운이 좋아 보인다 .	-.09(-.10)	.09(.09)	.03(.04)	**.48(.49)**
4. 나는 때로는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심한 적대감에 휩싸이곤 한다.	.10(.09)	-.07(-.05)	-.08(-.06)	**.60(.60)**
5. 나는 소위 '내 친구'라는 자들이 나에 대해 몰래 이야기하고 다닌다는 것을 알고 있다.	.09(.06)	.18(.23)	.08(.08)	**.33(.30)**
6. 나는 지나치게 친한 척 하는 낯선 사람을 보면 의심이 든다.	.10(.10)	.01(.00)	.00(.03)	**.39(.40)**
7. 나는 때로 사람들이 내가 모르게 나를 비웃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01(.00)	-.10(-.09)	-.02(.01)	**.73(.75)**
8. 누가 내게 지나치게 친절하면, 나는 그 사람이 내게 원하는 것이 있어서 그러지 않나 생각된다 .	.01(.01)	.01(.03)	.05(.08)	**.49(.49)**
고유치	3.12 (3.20)	2.68 (3.22)	2.67 (2.85)	3.73 (4.22)
전체설명변량(%)	34.97(35.56)			

* 역으로 채점되는 문항임.
\+ 한국판 AQ에서 제외된 문항임.
괄호안의 요인계수는 분노감 하위척도의 5, 6번 문항을 제외하기 전인 29문항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한 결과임.

내적합치도

AQ의 하위척도들과 전체 척도에 대한 내적합치도를 구하기 위해서 Cronbach의 α 값을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하위척도들의 경우 .67에서 .76사이의 값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다소 낮은 값이긴 하지만 10개가 안되는 적은 문항수를 감안해 볼 때 연구를 수행하기에 허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여겨진다(Nunnally, 1978). 전체 척도의 경우 이보다 향상된 높은 내적 합치도(α=.86)를 나타내고 있다. 두 문항이 제외되기 전인 7개 문항으로 구성된 분노감 하위척도의 α값은 .73 이었으며, 한국판에서 문항수가 5개로 줄어든 영향으로 내적 합치도가 .67로 다소 저하된 것으로 여겨진다.

검사 - 재검사 신뢰도

118명의 피검자를 대상으로 5주 간격으로 AQ를 실시하였으며, 이중 한번이라도 빠진 사람은 27명이었으며 최종적으로 분석에 포함된 인원은 91명이었다. 검사-재검사 상관은 다음과 같았다: 신체적 공격성, $r(91)=.71$, $p<.001$; 언어적 공격성, $r(91)=.83$, $p<.001$; 분노감, $r(91)=.60$(두 문항을 제외하기 전에는 .69였음), $p<.001$; 적대감, $r(91)=.75$, $p<.001$; 총점, $r(91)=.81$(두 문항을 제외하기 전에도 .81이었음), $p<.001$. 비교적 적은 문황들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검사-재검사 상관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점을 볼 때, AQ가 시간적으로 안정된 특징을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성별간 차이

남녀 집단간 AQ 하위점수와 전체점수에 대한 평균을 비교해본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하위척도들 중에서는 신체적 공격성과 분노감에서 남녀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547)=6.59$, $p<.01$; $t(550)=-4.11$, $p<.01$). 신체적 공격성은 남자가, 분노감은 여자가 더 높은 수준을 보였다. 적대감과 언어적인 공격성 면에서는 남녀가 모두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전 국외 연구들에서는 남녀간에 신체적 공격성과 언어적 공격성에서 일관되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신체적 공격성에서 높은 남녀 차이를 보였다. 이에 비해서 분노감과 적대감은 연구가 실시된 나라에 따라서 비일관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 문화적인 차이가 시사되었다(Buss & Perry, 1992; Meeters et al, 1996; Nakano, 2001).

표 2. 공격성 척도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및 내적 합치도

척 도	전체(n=552)	남 자 (n=218) 평 균(표준편차)	여 자 (n=334) 평 균(표준편차)	t	Cronbach α
신체적 공격성	19.45(5.18)	21.19(5.54)	18.31(4.59)	6.59*	.74
언어적 공격성	12.75(3.32)	13.01(3.43)	12.58(3.26)	1.50	.73
분노감	13.82(3.47)	13.08(3.39)	14.31(3.44)	-4.11*	.67
적대감	18.32(4.88)	18.29(4.92)	18.43(4.84)	- .33	.76
전체 점수	68.17(13.31)	69.21(13.54)	67.63(13.16)	1.35	.86

* $p<.01$

표 3. AQ 하위척도간의 상관(n=554)

척도	신체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적대감
언어적 공격성	.40**		
적대감	.34**	.30**	
분노감	.35**(.41)	.38**(.45)	.40**(.48)

** $p < .01$ (양측검증)
괄호안의 점수는 분노감 하위척도의 5, 6번 문항을 제외하기 전인 29문항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한 결과임.

AQ 하위척도간 상관

AQ의 신체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적대감, 분노감 하위척도들 간의 상관이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기대했던 대로 하위척도들 간에 높은 수준의 유의한 상관을 보이고 있다. 분노감 하위척도에서 두 문항을 제외하지 않았을 때의 상관이 괄호안에 제시되어 있는데, 문항수가 줄어들면서 상관도 낮아지는 경향을 일관되게 보였다.

다른 척도들과의 상관

AQ의 구성개념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STAXI-K와 PAI의 공격성 척도(신체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공격적 태도로 구성)와 긍정적 인상 척도와의 상관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STAXI-K의 상태 및 특질분노 척도와 AQ 하위척도들간의 상관을 살펴보면, 상태분노보다 특질분노와 전반적으로 더 높은 상관을 보여 AQ가 공격성과 관련된 특질적인 성격 차원을 측정하는 도구라는 점을 지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STAXI-K의 분노표현양식 하위척도들과의 상관을 살펴보겠다. 분노-억제는 분노를 경험하지만 이를 표현하지 않는 빈도로 정의되며, 분노-표출은 분노경험이 신체적 혹은 언어적인 공격적 행동으로 표현되는 빈도로 정의된다. 분

표 4. AQ 하위척도와 다른 척도들과의 상관(n=295)

척 도	신체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적대감	분노감	총점
STAXI-K					
상태분노	.10	.12*	.40**	.22**	30**
특질분노	.46**	.42**	.47**	.64**	69**
분노-표출	.38**	.38**	.21**	.48**	49**
분노-억제	.15*	.00	.50**	.10**	30**
분노-통제	-.14*	-.15*	.02	-.39**	-.21**
PAI					
신체적 공격성	.61**	.35**	.22**	.36**	.55**
언어적 공격성	.27**	.44**	-.04	.33**	.30**
공격적 태도	.39**	.36**	.14*	.60**	.50**
긍정적 인상	-.25**	-.16**	-.58**	-.48**	-.52**

STAXI-K: Spielberger State-Trait Expression Inventory-Korean version
PAI: 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 $p < .05$ (양측검증), ** $p < .01$ (양측검증)

노-통제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은 분노경험을 인지하고 분노표현을 막는데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며, 분노경험을 해소하는 많은 전략을 발달시키고 있다(Spielberger, Reheiser, & Sydeman, 1995). 예언대로 분노-표출 점수는 AQ 총점과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이는 반면에 분노-통제 점수는 AQ 총점과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 분노-표출 점수는 AQ의 신체적 및 언어성 공격성, 적대감, 분노감 모두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분노-표출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은 분노감을 자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를 공격적인 행동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으며 내적으로 적대감도 높은 경향이 있음을 시사해준다. 분노-통제 점수는 AQ 총점과 부적인 상관을 유의하게 보였으며, 적대감을 제외한 모든 AQ의 하위척도들이 분노-통제와 부적인 상관을 유의미하게 보였다. 분노-통제가 높은 사람은 분노나 공격성의 표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분노경험 빈도도 낮은 경향이 있음을 시사해 준다. 하지만 적대감과 분노-통제점수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분노-통제가 분노경험을 약화시키고 이를 공격적인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도록 하는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지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인 적대감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키는 것과는 관련성이 없음을 반영해 준다. 마지막으로 분노-억제 점수는 AQ총점과 유의하게 정적인 상관을 보이고 있어, 분노를 억제하는 것이 분노감 경험이나 공격적인 행동을 통제하는데 효율적이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적대감 하위척도와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어, 분노를 억제하는 사람일수록 적대감이 높은 경향이 있었다.

PAI 중에서 공격성 척도, 긍정적 인상 척도와 AQ의 상관을 분석해 보았다. 공격성 척도는 신체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공격적 태도 등의 하위척도로 다시 세분된다. PAI의 신체적 공격성 척도는 AQ의 모든 하위척도들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는데, 특히 신체적 공격성 하위척도와 가장 높은 상관을 나타내었다: $r(291)=.61$, $p<001$. PAI의 언어적 공격성 척도는 AQ의 적대감 하위척도를 제외한 모든 하위척도들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 AQ의 언어적 공격성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다: $r(291)=.44$, $p<001$. PAI의 공격적 태도척도는 AQ의 모든 하위척도들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 특히 분노감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다: $r(296)=.60$, $p<001$. PAI의 공격적 태도척도의 내용을 살펴보면(예, 나는 성질을 잘 부린다; 어지간한 일로 화내지 않는다), 화를 자주 표현하는 경향성을 측정하는 내용이 주가 되며, AQ의 적대감 척도에서와 같이 불신이나 의심과 관련된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PAI의 공격적 태도척도는 AQ의 적대감 척도보다는 분노감 척도에 상응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본 연구에서도 AQ의 분노감 척도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어 이를 지지하고 있다. 긍정적 인상 척도는 AQ의 모든 하위척도들과 유의하게 부적인 상관을 보여, 바람직한 모습으로 타인에게 비쳐지기를 바라는 사람일수록 공격성, 분노감, 적대감 등을 적게 경험하거나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논 의

분노감, 공격성, 적대감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서 공격성의 특질적인 성격적 차원으로 일반적으로 주장되어 왔다. AQ는 이러한 주장을 충실히 반영하는 도구로서, 다양한 표집을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들에서 그 유용성과 경험적인 타당성을 지지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AQ에 대한 타당화 연구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먼저 AQ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

과 분노감 하위척도의 두 문항(5번과 6번 문항)이 각각 언어적 공격성과 적대감 요인에서 더 높은 요인계수를 보여 이를 제외하는 것이 AQ의 4요인모델구조에 더 적합한 것으로 여겨졌다. 두 문항을 제외한 27문항으로 구성된 한국판 AQ를 새롭게 제안하고 이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이 다시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는 AQ의 4요인모델을 적절하게 지지하였다. 이렇게 새롭게 구성된 한국판 AQ를 가지고 신뢰도와 타당도 연구를 계속하였다.

내적합치도는 모든 하위척도들에서 .67에서 .76 사이로 적은 문항수를 고려할 때 연구를 위해서 만족스러운 수준을 보였다. 5주 간격을 둔 검사-재검사 신뢰도에서도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어 AQ가 시간적으로 안정된 성격적 특질을 측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Q에서 남녀간 평균을 비교했을 때, 신체적 공격성에서는 남자가, 분노감에서는 여자가 더 높은 수준을 보였다. 국외의 연구에서는 신체적 및 언어적 공격성에 있어서 남자가 여자에 비해서 보다 공격적임이 시사되었으며, 적대감과 분노감에서는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문화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보이는 결과는 남자가 여자에 비해서 신체적 공격성을 더 많이 보인다는 점이었다.

다른 척도와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AQ는 STAXI-K의 상태분노보다 특질분노와 더 높은 상관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AQ의 분노감 하위척도가 특질분노와 높은 상관을 보였다. 또한 AQ의 신체적 공격성 척도는 PAI의 신체적 공격성 척도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AQ의 언어적 공격성 척도는 PAI의 언어적 공격성 척도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다. 또한 분노 경험이나 표현 경향성을 주로 측정하고 있는 PAI의 공격적 태도 척도는 AQ의 분노감 척도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는 등, AQ의 하위척도들이 해당되는 영역을 변별력 있게 측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분노표현양식과 관련해서는 AQ가 분노 표출과는 정적인 상관을 보인데 반해서 분노 통제와는 부적인 상관을 보여, 공격성, 적대감, 분노감이 강한 사람들은 분노를 많이 표현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비해서 공격성, 적대감, 분노감이 적은 사람들일수록 분노를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분노 억제 표현양식은 AQ와 정적인 상관을 보여, 분노를 억제하는 것이 공격성 통제에 효율적이지 않음을 시사하였으며, 특히 분노를 억제하는 사람일수록 적대감에서는 더 높은 경향이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고려해 볼 때, Buss와 Perry(1992)의 AQ에서 두 문항을 제외하고서 한국판 AQ를 구성하더라도 AQ(Buss & Perry, 1992)의 신뢰도와 타당도에는 크게 손상이 가지 않았다. 한국판 AQ는 신체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분노감, 적대감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체적 공격성과 언어적 공격성을 공격행동을 반영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묶을 경우, 공격행동, 분노감, 적대감으로 구성된 공격성에 대한 3요인 모델을 적절하게 나타내고 있다. AQ의 신체적 공격성과 언어적 공격성은 행동적 차원이고 적대감은 인지적 차원, 분노감은 정서적 차원에 해당된다. 따라서 AQ의 사용에 의해 그동안 애매하게 정의되어 왔고 측정상에서도 구분이 명료하지 않았던 분노, 적대감, 공격성 등의 개념들이 보다 분명히 구분될 수 있으며, 특질 분노에 대한 보다 정교하고 체계적인 연구가 가능하리라 여겨진다. 이를 통해서 정신과적 환자나 기타 임상군을 분노 경험 및 표현과 관련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 심리치료적인 개입 시에도 차별화된 접근을 위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리라 기대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다음의 것들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첫째, 본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위해서 대학생 집단내에서 다른 표집군을 대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구해볼 필요성이 있으며, 둘째, 본 연구의 표집 대상이 대학생에 제한되어 있는 바, 대학생이 아닌 일반 성인을 표집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세 번째, 본 연구에서는 AQ와 다른 자기보고형 질문지간의 상관을 분석해보았는데, 모두 자기보고형 질문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후 연구에서는 AQ 결과와 분노, 공격성, 적대감을 반영하는 행동적 평가나 생리적 측정치와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확인된 AQ의 4요인 모델이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도 그 타당성이 지지되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김세진 (1999). 성인 애착유형에 따른 분노 경험 양상의 차이.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김영환, 김지혜, 오상우, 임영란, 홍상황 (2001). 성격평가질문지 실시요강. 서울: 학지사

남궁희승 (1995). 분노조절프로그램의 효과.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노안녕 (1983). 비행청소년에 있어서 공격성과 불안의 감소에 미치는 주장훈련의 효과.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안도용, 김교헌 (1996). 적대감과 과제개입이 분노와 혈압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 140-150.

전겸구, 한덕웅, 이장호, Spielberger, C. D. (1997). 한국판 STAXI 척도 개발: 분노와 혈압. 한국 심리학회지: 건강, 2, 60-78.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4th edition)*.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Bendig, A. W. (1962). Factor analytic scales of covert and overt hostilit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6,* 200.

Buss, A. H., & Perry, M. (1992). The aggression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 452-459.

Bushman, B. J., Cooper, H. M., & Lemke, K. M. (1991). Meta analysis of factor analyses: An illustration using the Buss-Durkee Hostility Inventor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7,* 344-349.

Buss, A.H., & Durkee, A. (1957). The measurement of hostility in clinical situations.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1*, 343-349.

Cook, W. W. & Medley, D. M. (1954). Proposed hostility and pharisaic-virtue scales for the MMPI. *Th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38,* 414-418.

Deffenbacher, J. L. (1999). Cognitive-behavioral conceptualization and treatment of anger.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5, 295-309.

Deffenbacher, J. L., Thwaites, G. A., Wallace, T. L., & Oetting. E. R. (1994). Social skills and cognitive relaxation approaches to general anger reduc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1,* 386-396.

DiGiuseppe, R., Eckhardt, C., Tafrate, R., & Robin, M. (1994). The diagnosis and treatment of anger in a cross-cultural context. *Journal of Social Distress and the Homeless, 3,* 229-261.

Eckhardt, C. I., & Deffenbacher, J. L. (1995). Diagnosis of anger disorders. In H. Kassinove (Ed). *Anger Disorders: Definition, Diagnosis, and Treatment(pp.27-47)*. Tatlor & Francis.

Harris, J. A. (1995).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the Aggression Questionnaire.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3*, 991-993.

Harris, M. B. (1996). Aggressive experience and aggressiveness: Relationships to ethnicity, gender, and age.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6,* 843-870.

Harris, M. B., & Knight-Bohnhoff, K. (1996). Gender and aggression: Personal aggressiveness. *Sex Roles, 35*, 27-42.

Kassinove, H., & Sukhodolsky, D. G. (1995). Anger disorders: basic science and practice issues. In H. Kassinove(Ed). *Anger Disorders: Definition, Diagnosis, and treatment(pp.1-26).* Taylor & Francis.

Leifer, R. (1999). Buddhist conceptualization and treatment of anger.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5, 339-351.

Martin, R., Watson, D., & Wan, C. K. (2000). A three-factor model of trait anger: dimensions of affect, behavior, and cognition. *Journal of Personality, 68,* 869-897.

Mayne, T. J., & Ambrose, T. K. (1999). Research review on anger in psychotherapy.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5,* 353-363.

Meesters, C., Muris, P., Bosma, H., Schouten, E., & Beuving, S. (1996). Psychometric evaluation of the dutch version of the Aggression Questionnaire.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4*, 839-843.

Nakano, K, (2001). Psychometric evaluation on the Japanese adaptation of the Aggression Questionnaire.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9*, 853-858.

Novaco, R. W. (1975). *Anger control: The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experimental treatment*. Lexington, MA: Lexiton Books.

Norcross, J. C., & Kobayashi, M. (1999). Treating anger in psychotherapy: introduction and case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5(3)* , 275-282.

Nunnally, J. C. (1978). *Psychometric theory*. New York: McGraw-Hill.

Ornstein, P. H. (1999). Conceptualization and treatment of rage in self psychology.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 *55(3)*, 275-282.

Paivio, S. C. (1999). Experiential conceptualization and treatment of anger.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5(3),* 311-324.

Prochazka, H. & Agren, H. (2001). Aggression in the general Swedish population, measured with a new self-rating inventory: The Aggression Questionnaire-revised Swedish version(AQ-RSV), *Nordic Journal of Psychiatry Special Issue: 55*, 17-23.

Robins, S. & Novaco, R. W. (1999). Systems conceptualization and treatment of anger.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5, 325-337.

Russel, S. F. (1981). *The factor structure of the Buss-Durkee Hostility Inventory*.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South Florida, Tampa, FL.

Russel, G. W., & Arms, R. L. (1995). False consensus effect, physical aggression, anger and a willingness to escalate a disturbance. *Aggressive Behavior, 21,* 381-386.

Sarason, L. G. (1961). Intercorrelations among

measures of hostility.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7*, 192-195.

Siegel, J. M. (1986). The Multidimensional Anger Invent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sogy, 51,* 191-200.

Spielberger, C. D, Jacobs, G., Russell, S., & Crane, R. S. (1983). Assessment of anger: The state-trait anger. In J.N. Butcher & C. D. Spielberger (Eds.), *Advances in Personality Assessment (Vol.2,pp.161-190)*. Hillsdale,NJ:Erlbaum.

Spielberger, C. D, Johnson, E. H., Russell, S. F., Crane, R. J., Jacobs, G. A., & Worden, T. J. (1985). The experience and expression of anger: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n Anger Expression Scale. In M. A. Chesney & R. H. Rosenman(Eds.), *Anger and hostility in cardiovascular and behavioral disorders(pp.5-30).* Washington, DC: Hemisphere Publishing.

Spielberger, C. D., Krasner, S. S., & Solomon, E. P. (1988). The experience, expression and control of anger. In M. P. Janisse (Ed). *Health psychology: Individual differences and stress* (pp. 89-108). New York: Springer Verlag.

Spielberger, C. D., Reheiser, E. C., & Sydeman, S. J. (1995). Measuring the experience, expression, and control of anger. In H. Kassinove(Ed). *Anger Disorders:Definition, Diagnosis, and Treatment (pp.1-26).* Taylor & Francis.

Williams, T. Y., Boyd, J. C., Cascardi, M. A.,& Poythress, N. (1996). Factor structure and convergent validity of the Aggression Questionnaire in an offender population. *Psychological Assessment, 8,* 398-403.

Zelin, M. L., Adler, G., & Myserson, P. G. (1972). Anger self-report: An objective questionnaire for the measurement aggress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9* , 340.

원 고 접 수 일 : 2001. 12. 24.
수정원고접수일 : 2002. 2. 22.
게 재 결 정 일 : 2002. 3. 4.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02. Vol. 21, No. 2, 487-501

Validation stud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Aggression Questionnaire

Su-Gyun Seo Seok-Man Kwon

Department of Psych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Aggression Questionnaire(Buss & Perry, 1992) is often being used to measure anger, hostility, aggression which are major symptoms of mental disorders. To develope the Aggression Questionnaire-Korean version, a battery of scales was administered to 565 university student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showed that two items of anger subscale had higher loadings at other factors than targer factor. So after omitting the two item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was done again. The results revealed that 4 factor model was adequately supported by omitting 2 items. Based on this results, the Aggression Questionnaire Korean-version was constructed and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is questionnaire was investigated. Internal consistency was acceptable, and test-retest reliability was high, so the AQ seemed to be stable over time. Correlations with other aggression inventories supported consistently validity of the AQ, particularly subscales of the AQ seemed to be measure target traits.

Keywords : Aggression Questionnaire, reliability, validity, exploratory factor analysis